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

이아름 연구원

■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15년 6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폴 애쉬워스(Paul Ashwort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회복 속도에 따라 연준이 2015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
- 월가의 빌 그로스(Bill Gross) 야누스 캐피털(Janus Capital) 매니저는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미국 연준이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0.25%p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함.
- 바클레이스(Barclays)의 마이클 가펜(Michael Gapen)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연준은 2015년 중반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모간스탠리(Morgan Stanley)와 BOA 등 일부 투자은행들은 저유가 등으로 인해 미국 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최대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함.

■ 연준은 2015년 1월 27일 금리·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2월 회의에 이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데 ‘인내심(patient)’을 가질 것으로 밝힘.

- 옐런(Yellen) 연준 의장은 2014년 12월 FOMC 회의에서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 연준이 향후 정책회의를 추가로 2회 개최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라고 언급하며 2015년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 그러나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급됨.
- 2015년 3월 FOMC에서 ‘인내심’이라는 표현 유지 여부에 따라 첫 금리 인상 시점이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국 경기 및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연준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외 위험도 확대되어 연준의 정책 변경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 노동부는 201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보다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향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수입물가도 낮아지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도 1%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경제 둔화 및 그리스 금융시장 불안,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미국 대외 위험 요인 지속으로 연준은 정책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20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화위기 양상도 보이고 있어 신흥시장 불안이 재발할 우려도 존재함.
 - 그리스는 Grexit¹⁾ 우려가 소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CDS 급등세,뱅크런 조짐 등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경우 전면적 부양조치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과 지방 부채 증가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됨.²⁾

■ 한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고려와는 반대로 유로 지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성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며 국가간 환율 전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짐.³⁾

- 2015년 1월 2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2015년 3월부터 최소한 2016년 9월까지 국채를 포함하여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발표하였고, 1월 28일 싱가포르통화청(MAS)도 통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함.
- 미국 연준과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 간에 통화정책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WSJ, FT 등)

1) 그리스 유로존 탈퇴.

2) Financial Times(2015, 2).

3) ECB의 양적완화 발표를 앞두고 2015년에 들어 스위스, 덴마크, 터키, 루마니아, 인도, 페루,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함.